

## 開 會 辭

李 相 禹

(西江大東亞研究所長)

尊敬하는 朴東鎭 統一院長官, 薛毓麒 中華民國 駐韓大使, 그리고 특히 遠路에 이 會議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오신 邵玉銘 國際關係研究中心 主任을 위시한 中華民國 學者 여러분, 또한 이 會議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오신 內外貴賓 여러분, 저는 이 會議를 준비해온 東亞研究所를 대표하여 심심한 謝意를 표합니다. 韓·中學術會議는 大韓民國과 中華民國 사이에 맺어온 각별한 親善關係를 學問次元에서 더욱 깊게하는 중요한 意義를 가진 회의로써 이제 6회의 歷史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會議를 통하여 그동안 두나라 學者들은 共通關心事에 대하여 서로의 研究業績을 交換하여 왔으며, 특히 서로의 處해진 位置에서 發展시켜온 特異한 觀點을 他方에 理解시키는데 많은 奇與를 해왔습니다.

大韓民國과 中華民國은 다같이 亞細亞文化라는 같은 뿌리를 共有하고 있으며, 十九世紀以來 西勢東漸의 歷史的 潮流속에서 近代化의 努力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半世紀 동안에는 함께 亞細亞共產主義와 싸워온 經驗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두나라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번 第6次會議의 主題는 韓中兩側의 共通關心事인 “共產國家의 開放化”로 정했습니다. 中國 共產主義體制는 그동안 累積되어온 自己矛盾의 限界를 스스로 느껴 스스로의 變革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北韓 共產主義體制도 뒤늦게 中共의 軌를 따르려하고 있습니다.

中共과北韓은 그동안의 閉鎖政策을 스스로 버리고 非共產圈 國家들과 交流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變化가 아주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共產主義者들이 스스로 自己路線에 회의를 느꼈음을 自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會議를 통하여 우리는 中共의 開放政策을 北韓의 開放政策과 比較 檢討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開放化政策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밝혀보고, 또한 어디까지 自己變革을 진해행나가려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中共과 北韓의 開放化政策은 共產主義 理念自體의 修正으로까지 發展할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會議에는 韓中兩國의 共產主義 專門家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政治·思想·經濟 등 모든 領域의 專門家들이 모여 여러 側面에서 主題를 分析하게 될 것입니다. 이 會議를 통하여 共產體制의 開放化에 대한 우리의 理解가 높아질 것을 確信합니다.

끝으로 中國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滯韓이 여러분들의 韓國社會와 韓國人에 대한 理解를 높이는 좋은 契機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滯韓이 되기를 빕니다. 이번 會議를 後援해주신 統一院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開會人事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